

# 산 · 계곡의 아름다움과 맞물려 '가을의 절경' 이뤄

**최** 근 오르기 어려운 산보다는 가볍게 걸으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지리산둘레길이 산을 좋아하는 매니아들로 붐비고 있다.

지리산 둘레길은 약 300km를 잇는 장거리 도보길로 지리산을 감싸고 있는 3개도(전남·전북·경남), 5개시군(구례·남원·하동·산청·함양) 100여개마을의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둑길, 마을길 등을 이어 하나의 길로 연결되어 있다.

길 전체는 2012년 개통될 예정이며, 현재 걸을 수 있는 구간은 전체 300km중 210km로 전북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에서 경남 함양군을 거쳐 산청군 금서면 수철리까지 이어지는 71km 구간이 2008년도에 개통되었고 올해 5월 추가 개통된 산청, 하동, 구례 140km구간이 탐방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의 명소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곳은 구룡계곡으로, 가을 구룡 계곡의 백미는 붉게 물든 단풍이 너무나도 투명한 계곡물과 만나 연출하는 풍경이다. 마치 엄마 품에서 떠나 영영 울다 보니 온 몸이 빨개져 손끝까지 빨강계 물든 아기의 손바닥을 보는듯한 지리산 가을 단풍은 그 바로 아래서 햇빛을 올려다 볼 때 더욱 빨강계 변하며 수줍게 자신의 색깔을 드러낸다.

가까이서 봐도 아름답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단풍나무와 계곡이 어우러진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천상의 선녀가 노니는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하는 기분 좋은 착각과 함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펼쳐진다.

조금은 차갑게 느껴지는 늦가을 찬바람도 구룡계곡의 멋진 경치를 구경하며 정신없이 걷다보면 어느새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식혀주는 소중한 친구가 된다.

시끄럽게만 느껴졌던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도 이제는 그 소리마저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지리산의 풍경에 매혹될 무렵이 되면 이제 구룡계곡의 화룡점정인 구룡폭포의 웅장함을 마주하게 된다.

여름 장마철의 장대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오히려 조금은 차분한 느낌과 함께 붉은 빛깔 단풍과 어우러져 진중한 모습의 자태를 뽐내는 구룡폭포를 보고 있다면, 단아한 한 쌍의 남녀 모습을 그려보게도 된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인지, 아니면 그저 지구의 변덕 때문인지 갈수록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빨라지는 느낌이 든다.

늦가을이란 말을 쓰기가 무섭게 초겨울이란 말이 더 익숙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지리산 구룡계곡에는 일 년 중 오직 이 순간에만 즐길 수 있는 멋진 풍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리산의 가장 멋진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는 기회, 아직은 늦지 않다.

늦가을에만 즐길 수 있는 멋진 풍경들 담을 수 있어

가볍게 걷는 '지리산둘레길' 1구간 구룡폭포로 가는 순환코스가 많은 사랑을 받아

산행중 주위에 가지각색의 단풍 구경하는 것도 '재미'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등산객들.



단풍으로 붉게 물들인 지리산 전경.

### ▲수려한 산세와 기암절벽으로 이어지는 구룡계곡 순환구간

지리산 둘레길중 제1구간은 남원시 주천면에서 운봉읍까지이며 구간별 경유지로는 주천면-내송마을-솔정지-구룡치-회덕마을-노치마을-덕산저수지-질매재-가장마을-행정마을-양묘장-운봉읍의 14.3km로 총6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 구간은 해발 500m의 운봉고원의 너른 들과 6개의 마을을 잇는 옛길과 제방길로 구성되어 있고, 이곳은 옛 운봉현과 남원부를 잇던 옛길이 지금도 잘 남아있는 구간이다.

마을과 마을이 만나고 소통하는 길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곳, 지리산둘레길!!

특히, 지리산둘레길 1구간 구룡폭포로 가는 아름다운 순환코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고 있다.

이 코스는 주천면 육모정에서 출발해 '춘향전'의 주인공인 춘향묘를 지나 1시간30분정도 되면 구룡폭포를 만날 수 있는, 육모정→유선대→지주대→비폭동→구룡폭포까지는 편도 약 3km로 2km까지는 완만한 산책로 같은 곳으로 비교적 수월하지만 1km는 가파른 길과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룡계곡은 주천면 호경리에서 주천면 덕치리까지 펼쳐지는 아름다운 절경이다. 수려한 산세와 깎아지른듯한 기암절벽으로 이어지는 이 계곡은 길이가 약 3km로 정상에 오르면 구룡경의 구룡폭포가 있다.

구룡폭포는 가파른 절벽에서 급하게 낙하하는 폭포가 아니라 비교적 완만한 경사의 바위를 타고 미끄러지듯 떨어지는 두 갈래의 폭포



아름다운 구룡계곡의 구룡다리.

이다. 폭포 아래쪽에 형성된 작은 소에서 울려 다보면 마치 용 두 마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모습으로 남원 8경중 제1경인 구룡폭포 아래에는 용소라 불리는 소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다.

구룡폭포로 가기전 구룡다리에서는 어린 시절 동심을 느끼게 해주는데 땀 흘려 오르던 산행을 말끔히 날려주고 탁 티인 시야에 들어오는 폭포의 물줄기를 보면 가슴까지 시원하게 느껴진다. 산을 오르다 주위를 둘러보면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노랑, 연두, 빨강 등 가지각색

의 단풍을 보는 즐거움도 선사한다.

지리산 단풍은 고지대부터 계곡과 능선을 따라 오색으로 곱게 물들고 있는데 그 모습은 지리산 산세와도 같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10월 말쯤이면 곳곳이 단풍경관이 절정에 이러 작년보다 날씨상황이 좋아 더욱 화려한 자태를 보여줬다.

오는 주말 도심을 떠나 가을의 내음을 맡고 싶다면 서둘러 연인과 가족과 함께 느리게 걸으며 빨강계 물들어 가고 있는 지리산을 찾아가자. /남원=김기두 기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